

한중일 FTA 세미나 신봉길 사무총장 개회사

한중일 FTA 세미나

2013년 6월 18일, 중국 웨이하이

한중일 3국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중일 FTA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중일 3국 내의 양국 관계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과 역사문제, 영토문제, 그리고 민족감정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3국 간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3국 협력 방안과 전망을 연구하기 위한 3국 학술 세미나 등의 활동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서울에서 제 1회 한중일 기업인 네트워킹 리셉션을 주최했고, 3국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3국 청년들 간의 교류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협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갈등과 협력의 기복을 겪어 왔습니다. 1999년 이래 3국 정상들은 ASEAN+3 정상회의 참석 기회를 이용하여 약식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2005년과 2006년에는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3국 리더들은 3국 정상회의를 ASEAN+3 회의 참석 기회와는 별도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3국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또한,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하고,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한중일 3국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국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어 공동관심사가 많고,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미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여는 길뿐입니다. 어렵겠지만, 우리는 우정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의 푸른 싹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3국 간에 연대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중일 FTA 주진의 의의>

관계자 여러분,

한중일 FTA 추진은 3국 협력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할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지역 생산네트워크 파트너입니다. 2012년 역내 총 무역수치는

총수입만 따져봐도 약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상호의존도가 높은 3국이 경제적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미래의 3국은 총 GDP가 약 15조 달러에 이르는 15억 인구의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시장이 전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중일 FTA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입니다. 현재 아태지역에는 TPP나 RCEP과 같은 지역경제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경제리더 격인 한중일 3국은 FTA 협상에서 주요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한중일 FTA는 3국 협력을 심화시키는 확고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FTA 교섭은 그 자체가 한중일 3국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경제분야에서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 과정입니다. 한중일 FTA 협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자유로운 인구의 이동 같이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기본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중일 FTA는 3국 간 평화와 공동번영의 원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사무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무국은 3국 협력의 지원, 연구 및 증진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넓혀 나갔습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이미 3국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사무국이 3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가치 있는 기구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은 한중일 FTA가 3국 협력의 중추라고 생각하고, 한중일 FTA의 체결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오늘 한중일 FTA 세미나는 이 같은 저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결실입니다. 세미나장의 곳곳에는 한중일 FTA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국에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3국 정부, 특히 3국 협상 팀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3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 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 시정부와 차이나 데일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웨이하이 투자율은 대중국 투자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3국 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생생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한중일 FTA 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지를 넓혀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중일 3국 간 원-원-원 파트너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